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1월 25일 (제97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스스로 계란을 깨라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집을 대신 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는가! 계란을 내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사실을! 계란껍데기를 깨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깬 때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것이다. 나비도 고치에서 스스로 힘으로 나오면 세상을 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안쓰러워 고치를 열어주면 날개가 말라붙어 생명을 잃게 된다. 그 나비는 응당 겪어야 할 고통과 험난한 투쟁을 겪지 않았기에 자신의 큰 날개를 지탱할 힘과 바깥세상을 버텨낼 면역력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성공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 고충이 있고, 역경이 있다.

예수님도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싸움을 이기고 만인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은 능히 천사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하실 수 있으셨다(마26:53).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고난의 짚을 지셨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계시다면 왜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그것도 고통스러워하는 당신 바로 곁에 계신다. 그럼에도 도와주지 않고 당신 스스로 껌데기를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야 생명체가 되니까. 그래야 날개에 힘이 붙어 훨훨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 속 투쟁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지혜를 얻으며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스스로 껌질을 깨야 면역력이 높아져 거칠고 거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유익이다.

얼마 전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쪽 지방에 계시는 모 권사님인데, 이번 집회에 말 못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려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웃에 사는 병어리 한 분을 이번 서울 집회에 모시고 가서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를 받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고칠 수 없다는데 그분이 아직 믿지를 않아요. 데려가도 될까 모르겠네요.”

보통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요.’ 하며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고 하

분이 책임도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명령을 받아, 곧 수명(受命)하여 집행할 뿐입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 하셨기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가 낫고 안 낫고, 고치고 못 고치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이면 애통하며 더 능력을 달라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 환자가 믿지 못하는 것이면 그 또한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토로하는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라’ 했던 빌립처럼(요1:45~46),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앉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심고 물 주는 것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모시고 오세요.”

권사님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지, “그렇죠, 목사님? 그분 남편도 웬일로 갔다 오라고 선선히 허락하고 그분도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라며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는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될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를 위해 40일 작정기도를 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그



아직도 싸움이 남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영혼을 추수하자!

나님이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고치시는 건데, 이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해줍니다. 아마도 그 권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레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멀리 데리고 가는데 믿음이 없어 고칠 수 없다면 헛수고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실 때 자주 예를 드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두려워하는 지 아십니까? ‘이거 안수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신

“권사님,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요6:65)고 말이죠. 그분이 아직 믿음이 없는지는 몰라도 권사님을 따라 서울까지 오기로 하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것이요,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이 ‘내 전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기에 발품을 팔아서 영혼들을 데리고 천국잔치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입이 열려 말을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나는 것은 권사님 책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와보

려나 여전히 전도할 영혼을 찾지 못하였다고 낙심하진 마세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번민하며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분투할 지라도 종국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싸울이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갈6:1~7)

절대!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만 하라

여러분, 진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70평생에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사과 따는 걸 못 봤고, 장미나무에서 국화가 맺힌 것을 못 봤습니다. 성경에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짙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눅 6:44).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갈6:7).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주를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미움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말하나마나 저주가 나고 미움이 납니다. 사울이 그 샘플입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 악신을 쫓아주었습니다. 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민족을 알잡아 볼 때 다윗이 물땃돌을 들고 나가 골리앗을 물리쳐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머리털을 뽑아서 신발을 삼아줘도 모자랄 판인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되레 다윗을 시기하여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저주가 오히려 자신과 자녀들에게 임해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칼에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마저 베임을 당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옛말에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파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것도 파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못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시 109:17~18). 모르드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하만도 결국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달렸지 않습니까(에7)?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셈입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놀리던 산헤립도 18만 5천명의 군대가 전멸하고, 자신도 그 몸에서 난 자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대하32)?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사랑을 심고, 선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답은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이 나고, 사랑과 선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대! 남을 저주하

지 맙시다. 그저 축복만 합시다. 성경은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롬12:17).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습니다(롬12:21),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5:44).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롬12:20).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안다면 억지로라도 좋게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이단의 교수로 모함했을 때도, 제가 안수한 목사가 배신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를 저주하며 떠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났을 때도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제 잔이 넘치게 하시고, 반면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도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롬 12:14~19).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길은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그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면

대개는 자신의 지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떠올리며 ‘원수 같은 놈들...’ 하며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를 부드득 갈며 ‘이 놈을 기다렸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보고 떨 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창45:5).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거짓증인을 세워 그를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니 무리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함께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

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분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일개 로마병정에 잡혀 십자가에서 갇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이 세상에 주렁주렁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산울림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사랑해’라고 외치면 저 멀리서 ‘사랑해~ 사랑해~’ 하고 여러 번 울려옵니다. 그러나 ‘미워’라고 외치면 ‘미워~ 미워~ 미워~’ 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에 산울림 법칙에 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지금 당신 가족에게,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건 당신

이 미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씨 하나를 심었을 뿐이지만 그것이 자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미워했습니까? 남편이 돈 못 번다고 ‘나가 죽어라’고 저주했습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며느리에게도 그랬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 뿌린 것은 뽑아버리고 이제라도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뿌리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저주하면 내 저주가 인생에 쌓이고, 축복하면 축복이 내 인생에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두 개 파라

이제는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상사가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해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사를 치워 주실 것이고, 내가 승진되게 하실 것입니다. 못된 이웃이 있습니까? 그래도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미국에 사는 성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옆집에 사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쁜 놈들’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믿음 좋은 아내가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나쁜 말을 하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찾아가 화해를 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집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하게 되어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옆집에 살던 부부의 여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서부 쪽으로 이사해서 아주 성공했는데, 그 집 무남독녀가 바로 며느리 감이 된 겁니다. 두 부부는 집에 돌아와 ‘그 때 화해하길 얼마나 잘했나, 저주했더라면 어찌 되었겠느냐.’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요, 좋은 후일을 보고 싶으면 남을 저주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맙시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좋은 것을 주면 사랑이, 축복이, 좋은 것이 흔들어 눌러 넘치게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자녀에게도 ‘축복합니다.’라고 하세요.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도, 그리고 이웃나라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봉사와 사랑은 보약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50대 중년 남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몇 개월 밖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우에 남을 이기기 위해 상대를 험하게 대하고 불만족한 상태에 대해 화를 내고 심지어는 특정인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비통해하며 병원에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 밖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남을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면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을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봉사와 헌신, 기부 등을 꾸준히 한 그는 84세까지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세계 최고의 갑부이면서 세계 최대의 기부를 한 미국의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화를 내거나 남을 미워하게 되면 몸에서 노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이 호르몬은 지상에서 독사 다음으로 강한 독성이 있는데, 한 번 화가 날 때 분비되는 양이 생쥐 7마리를 죽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제공하고 창

조력과 긍정적 사고를 가지도록 합니다. 더군다나 이 호르몬의 분비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일에서 2주간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봉사하지 않고 테레사와 같은 성인이 남에게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고 감사할 때에도 동일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봉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를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우리 몸에는 그 어떠한 보약보다도 좋은 면역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의 일부라도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 신앙논객 ::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1780년, 예수를 따르던 로버트 레이크스(Robert Raikes)라는 한 영국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만족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심으셨다. 그가 살던 18세기 영국의 빈곤층 어린이들은 공장이나 탄광에서 하루 16시간씩의 노동을 강요당했고, 그나마 일을 쉬는 일요일에는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몰려다니며 싸움과 욕지거리를 하기 일쑤였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파멸시키는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그는, '세상은 어린 아이들의 발로 전진한다!'는 구호 아래 일주일에 몇세씩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한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 그는 "내가 무료 학교를 만들어 그들에게 읽고 쓰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주일학교'라고 불렀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교육에 비전을 품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16만 명의 자원봉사교사들이 뜻을 같이 하였고, 주일학교 운동은 불과 5년 만에 영국 전역에 퍼져 전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125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이 주일학교 운동은 영국학교 교육체계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우리나라도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까지는 구한말부터 일제치하 시기까지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뿌려가며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와 같은 미국의 수많은 명문 대학들은 기독교 사상을 기초로 세워진 학교들이며, 지금 세계 경제를 좌절파락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민족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가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누런 사연들이
내 발을 덮고 사각거릴 때
계절이 스치는 하늘을
눈 가득 바라본다
오늘까지 심고 가꿔온 내 열매를 따서
내 주님 가슴에 전하고파
들끓는 단풍처럼 붉은 가슴을 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朋友

:: 생명의 말씀 ::

영역 주권의 싸움

과학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가능성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곧 도래할 인공지능의 시대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7세기 과학의 발전으로 온 우주의 규칙과 원리들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은 마치 시계를 만든 '장인'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만 놓았지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무인격적 존재로 밀려났다. 점점 모든 일들이 과학과 의학의 영역으로 해결이 가능해지니, 신앙의 영역이 위축되는 듯하다. 웬만한 병은 기도 없이도 치료가 가능해진다. 의학, 과학, 첨단기술을 신봉하기 쉬워지는 시대이다.

이성과 신앙, 과학과 성경! 이 두 영역은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일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라 믿어야 하는가? 내가 하다가 안 되는 나머지 부분만을 하나님이 조력해주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것인가?

성경은 전 우주적 영역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온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시고 수명과 거주지까지도 정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움직이고 의존하여 살도록 만드셨다(행17:24~28). 그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우리는 늘 고백한다(마6:10). 세상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없다 하신다(요15:5). 아무리 과학과 의학 기술이 발전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그분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은총의 성과들이다. 이성과 과학과 의학?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지만, 그 설계자이시며 작동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며,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만든다. 이성과 신앙이라는 두 영역에서 선택을 갈등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령에 조명된 이성은 결국 신앙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빌4:6).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우리 아빠

고등학교 시절, 지방의 한 동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목사님께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따로 불러서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고3이었던 그 해에도 어김없이 11월이 되자, 목사님은 축복기도 해주실 날짜를 알려주시며 수험생들에게 꼭 참석하라고 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부모님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축복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친구들은 모태신앙이라 아무 걱정 없었지만, 제 부모님은 교회를 매우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말도 못하고 축복기도 받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 목사님 앞에 차례차례 줄을 섰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엄마나 아빠와 손잡고 서 있었고 저는 혼자 담담하게 서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어머니께 "엄마, 영신이 엄마 모셔오라고 했잖아." 하며 화를 내었고, 그 어머니는 말없이 난처한 표정만 짓고 계셨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저 몰래 '저희 엄마 좀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던 모양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더 쳐량해지기만 하고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다른 곳을 쳐다보며 못 들은 척했습니

다. 그렇게 어물어물 서있다 기도를 받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에 신앙서적들을 읽다가, '내면의 아픔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대목을 읽게 되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던, 고3 시절 수능을 앞두고 축복기도 받았던 그 날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서러웠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려니 굉장히 괴로웠지만, 그래도 괴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축복기도를 받던 그 교회 안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혼자 서있어야 할 제 옆에, 예수님이 제 손을 잡고 서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내 딸이야!" 이제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 시간만큼 '우리 아빠'라는 믿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예전에

했고, 손해 보는 일이 생기면 기꺼이 양보하지 못했으며,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빠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조바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이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인내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신뢰하며 오늘도 힘차게 한걸음 내딛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6~18).

박영신 성도

rubyday0@naver.com

고정관념

마차의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너무 쉽게 닳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닳지 않는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쇠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줄을 깔아보기로.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길에 고무줄을 깔자니 비용과 노동력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바닥에 고무줄을 깔 게 아니라 바퀴에 고무를 씌우면 어떨까?"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무가 어떻게 그 무게를 견디겠어? 너무 물렁물렁해서 절대 마차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그 사람은 남들이 절대 안 된다는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고무 속에 바람을 넣은 타이어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순식간에 고무 길바닥과 쇠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그건 안 돼', '예전에도 안 됐어', 이런 고정관념은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늘어 집니다. 고정된 생각을 파할 때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달려올 것입니다.

이초석 목사 은사집회

2018. 11. 28~29 저녁 8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문의 02. 533. 9191